

전북현대 "AFC 챔피언스리그 4차전 꼭 승리"

오늘 빈즈영과 원정경기 무더운 날씨 극복이 관건

빈즈영 전을 앞둔 전북현대의 수장 최강희 감독이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북현대는 오늘 빈즈영과 2016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다.

최 감독은 경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당초 목표가 16강 진출이고, 조위로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며 "조별리그 원정은 항상 어려움이 많은데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날씨, 환경에 적응해준다면 내일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고 원하는 승점 3점을 따고 돌아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해 이 곳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고, 올 초 강팀인 장수군(중국)도 여기서 비기고 가는 걸 보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기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있어 이기고 돌아라 믿는다"며 선수단에 대한 신뢰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과 빈즈영에서 주의할 선수를 묻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날씨가 덥긴 하지만 충분히 적응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선수단을 독려했고 "빈즈영의 외국인 용병 3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선수"며 빈즈영의 수준 높은 외국인 용병에 대한 경계를 밝혔다.



전북현대 AFC 4차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수대표 김형일(왼쪽)과 최강희 감독

전북현대 선수 대표로 참석한 김형일 선수에게 선수단 분위기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인한 정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가올 경기에서 능력을 지닌 우리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빈즈영을 우연 탄순 감독은 "경기를 잘 준비했고 선수들 컨디션도 좋으며 '어려운 경기 예견되지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전북 이동국 루이스 레오 나르도, 로페즈 등을 주의해 경기를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여유로운 조별리그 1위 통과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북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빈즈영을 격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체육회, 6월까지 도 종목단체 통합 권고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5일 전라북도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통합추진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종목별연합회 사무국장 30명, 도 체육회의 경기단체 전무이사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까지 도 종목단체인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의 통합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으며 기한 내 통합되지 않은 종목체는 대의원직제 상설 등 불이익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비통합 대상종목은 가급적 5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통합 대상은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등 30개 종목이며, 비통합 단일 종목 37개 종목을 합쳐 총 통합 후에는 67개의 도 종목단체로(정60, 준6, 인2)로 구성된다.

/김민근기자

장수군, 8일~11일 춘계전국승마대회 개최

제27회 춘계전국승마대회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장수승마장(장수군 천천면 승마로 913)에서 열린다.

(사)대한승마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엔 마필 300두, 5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장애물, 유소년, 복합기술 및 국내승용마경기가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말의 고장으로서의 장수군의 입지를 다지고 지속적인 대회유치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승마장은 부지면적 16만5,314㎡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238석의 마방과 888석의 관람석이 갖춰져 있으며 그동안 각종 국내외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제승마장으로서의 시설 검증을 받았다.

/장수=고관호기자

'절친 라이벌' 추신수·이대호 '꿈의무대' 개막전 대결

추신수 밀어내기 볼넷 첫 타점...대타 이대호 삼진 희비 엇갈려

대한민국 간판타자이자 34세 동갑내기 절친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가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격돌했다.

추신수는 무안타에 그쳤지만 밀어내기 볼넷으로 팀의 역전승에 발판을 마련했다. 대타로 데뷔전에 나선 이대호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개막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3타수 무안타 1볼넷 1타점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상대 선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1회 무사 주자 1루 첫 타석에서 1루수 팻볼로 돌아섰고, 3회 1사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 공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팀이 0-2로 뒤진 5회말 1사 만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았다.

타석에 오른 추신수는 에르난데스의 1볼 1스트라이크에서 볼 3개를 연속으로 골라내며 올 시즌 첫 타점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기록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텍사스는 프린스 필더의 빗맞은 타구가 좌익수와 유격수 사이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가 되면서 2-2 동점에 성공했다.

이어 아드리안 벨트레의 팽볼 타구를 상대 유격수가 실책을 저지른 틈을 타 3루에 있던 달리아노 드실즈가 한 점을 추가하며 3-2로 경기를 뒤집었다.

벤치에 대기했던 이대호는 팀이 역전당한 7회초 1사 1, 2루에서 레오니스 마틴의 타석 때 대타로 나서며 메이저리그 데뷔 첫 타석을 맞았다.

이대호는 텍사스 좌완 에이스 콜 헤벌스를 상대로 볼 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커브에 체크 스윙했으나 배트가 들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4구째 체인지업을 커트하며 다음 공을 노렸으나 5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시애틀 선발 에르난데스와 볼펜 마이크 몽고메리에게 단 1안타에 그쳤다.

5회 필더의 행운의 안타가 시애틀에 뽑아낸 유일한 안타였다. 그러나 텍사스는 볼넷 3개와 상대 실책 2개를 묶어 3점을 얻어내며 개막 첫 경기를 역전승으로 일궈냈다.

텍사스 선발 헤벌스는 7이닝 동안 솔로 홈런 두 방으로 2실점 했으나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다.

7이닝 동안 솔로 홈런 두 방으로 2실점 했으나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다.

7이닝 동안 솔로 홈런 두 방으로 2실점 했으나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다.

7이닝 동안 솔로 홈런 두 방으로 2실점 했으나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다.

/김민근기자

상주 상무 프로축구 선수들 소매치기범 잡아 화제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프로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 밖에서 강철 체력을 뽐냈다.

5일 상주에 따르면 이용, 박진호, 김성환(이상 상병), 김성주, 김성준(이상 일병), 이경렬, 조영철(이상 이병) 등 7명은 지난 3일 소매치기범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접촉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도와달라'는 시민의 외침이 울렸다.

주변을 살피니 한 남성이 노파의 가방을 가로채 달아나고 있었다.

이들은 너나한 것 없이 달려나갔고 100여m 추격 끝에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그라운드에서 다져진 선수들의 발을 당해내지 못하고 이내 도주를 포기했다. 이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선수들은 경위를 설명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들의 선행은 다음 날 도움을 받은 시민이 국군체육부대로 연락을 하면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도움을 준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국군대표선수'라는 부처들이 붉은 옷을 기억하고 경찰서를 통해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